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펀케어넷 협동조합 창립... 이사장 황덕영 목사



펀케어넷 협동조합 창립식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맨 앞줄 왼쪽에서 3번째가 이사장 황덕영 목사. ©펀케어넷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돌봄서비스 플랫폼 ‘펀케어넷’이 협동조합으로 거듭난다. 펀케어넷 창립총회가 3일 경기도 안양시 새중앙교회(이사장 황덕영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장에 황덕영 목사가 선출됐다. 이 단체는 2021년에 재단법인 ‘너머서’의 지역사회개발 사업으로 시작하다가 안양, 군포, 의왕을 중심으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자 ‘펀케어넷’ 협동조합으로 이날 재창립된 것이다.

앞서 새중앙교회는 지난해 12월 펀케어넷을 위한 봉사자교육(핀스타)을 주관하고 교육공간을 제공하는 등 펀케어넷 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주요 사업은 ▲병원치료 이후 퇴원해 일상에서 재활을 준비하는 환자와 가족들 ▲1인가구 등 일상에서 영적 케어를 포함한 몸과 마음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 ▲혼자 지내는 가족을 위해 일상지원과 안부지원을 원하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및 환자 가족 돌봄 종합서비스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를 위한 지역사회개발 사업 등을 진행한 다. 특히 펀케어넷은 퇴원 후 병원 진료와 재활운동 등을 홀로 지속하기 어렵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 심리적 외로움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일상 지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사장 황덕영 목사는 “새중앙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지역사회와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한국교회가 협력하기를 바란다. 오늘 창립총회가 그 시작점이 되길 기대하며, 정

말 도움이 필요한 곳을 돕는 협동조합이 되어,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서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효산의료재단의 이대희 이사장은 “펀케어넷협동조합은 새중앙교회와 함께 나눔사랑, 이웃사랑 실천의 모델이 될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문의는 펀케어넷협동조합 사무국(1660-2679)으로 연락하거나 어플(구글 스토어:펀케어 검색) 설치 및 웹사이트(<https://www.funcaenet.com>)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노형구 기자

소망교도소, 한국가정교회사역원과 출소자 사회정착 위한 MOU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한국가정교회사역원(원장 이경준 목사)과 지난 3일 수행자 인성교육 및 출소자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소망교도소 수행자들이 건강한 신앙 가운데 변화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행자-출소자 대상 신앙 및 인성 지도 프로그램 공동개발 △출소자를 위한 교회 연계, △영적 돌봄 및 멘토링 지원 △출소자에 대한 자립 지원 정보 공유 등 사회복귀 여건 조성 △사역자 및 인성 교육 전문가 인적교류 등을 함께 한다. 가정교회사역원(원장 이경준 목사, 이

하 가사원)은 최영기 목사가 1992년 미국 텍사스 주의 휴스턴 소재 서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시작된 ‘가정교회 운동’에서 시작했다. 소망교도소에 따르면, 가정교회사역원이 추구하는 ‘가정교회의 핵심가치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다하고 예배와 교육, 교제와 전도에 힘쓰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가사원은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신입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삶과 신앙을 소그룹 중심으로 진술하게 나누는 ‘행복한 삶’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그들의 진정한 변화를 돕고 있다고 한다.

소망교도소는 이번 협약으로 가사원과 수행자의 인성교육 뿐 아니라 출소자들이 가족으로 품어주는 지역교회와의 연계를 통해 그들의 사회 및 신앙공동체 정착을 돕는 ‘빌레몬 사역’까지 함께 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과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가정교회를 정착시킨 최영기 목사, 한국가정교회사역원장 이경준 목사 등 가사원 리더십 목사 6명과 빌레몬 팀원 9명이 함께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최영기 목사는 “수행자를 변화시키는 프로그램보다도 그들을 먼저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족으로 품어주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고 전했다.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은 “가족의 가치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소중한 동역자로 함께 해주심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 여주 북내면 소재 소망교도소는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목사)가 2010년 설립한 교화중심형 비영리 민영교도소로 수행자들의 출소 후 건강하고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김영식 소망교도소장(오른쪽)과 이경준 한국가정교회사역원장이 MOU를 체결하는 모습. ©소망교도소

정부세종청사 기독교선교연합회, 3일 부활절 기념 연합예배 성료

정부세종청사 기독교선교연합회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독교 공무원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활절을 기념하는 연합예배를 개최했다. 이번 연합예배는 정부세종청사기독교선교연합회(회장 최은희)와 행정안전부 기독교교회(회장 이방무)가 함께 주최했다. 이날 세종청사연합선교회 경배와찬양팀의 찬양, 최은희 회장의 대표기도, 이윤신 부회장의 성경봉독, 세종청사연합선교회 찬양, 그리고 임용한 목사의 설교 등 여러 순서로 진행됐다. 임 목사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만일 부활이 없으면(고전 15:12-20, 58)을 주제로 설교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됐다”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듯 우리도 부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 ©정부세종청사 기독교선교연합회

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세종청사 선교연합회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25개 부처와 위원회의 선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부활절과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등을 기념하는 연

합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 선교회별로도 자체 예배와 기도모임을 갖고 있다. 매주 노방전도 실천과 구국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부활절을 맞아 이 단체는 각 부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계란나눔 행사 등을 진행했다. 노형구 기자

서원경교회 등 청주지역 교회 총복대에 장학금 기부

총복대학교(총장 고창섭)는 최근 서원경교회 등 청주지역 교회 및 총복대기독교교회에서 장학기금으로 사용해달라며 1천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청주지역 교회를 대표해 황순환 서원경교회 담임목사와 총복대기독교교회회의 전익수 기독교교회장(농업경제학과), 이의신 부회장(정보통신공학부), 최예나 총무(행정학과), 한현숙 회계(의류학과), 조미경 전기독자교수회장(간호학과), 박현란 전기독자교수회장(간호학과)이 참석했다. 황순환 서원경교회 담임목사는 “총복대기독교교회에서 총복대 재학생 및 유학생들의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힘을 쏟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총복대 캠퍼스에 흘러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고 했다. 전익수 총복대기독교교회장은 “서원경교회뿐만 아니라 청주지역의 많은 교회에서 우리 총복대 학생들을 위하여 십시일반 후원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이 후원금이 유학 온 학생들에게 장학기금으로 사용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고창섭 총장은 “총복대 학생들을 위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하여 주신 서원경교회 및 청주지역의 교회, 기독교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꿈을 찾아 우리 대학교에 유학 온 학생들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 전달식을 마치고. ©총복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총복대기독교교회는 총복대 캠퍼스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세워나가는 교수로 이루어진 기독교 단체라고 총복대는 전했다. 노형구 기자

‘부활절 사랑의 밥사랑잔치 및 선물 전달식’ 열려

소외되고 어려운 쪽방촌 주민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부활절 사랑의 밥사랑잔치 및 선물 전달식’이 최근 엘드림노인대학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크리스천 리더모임인 윤종포럼(회장 박찬규 장로), 전문인 사회봉사기관 (사)월드뷰티앤즈(회장 최에스더 신한대 K-뷰티학과장) 등을 비롯해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장원일 신생명나목교회 목사), K-뷰티사사이터연구소,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등이 함께했다. 김진영 기자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짝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워진 피부 나이**

- 10.6%** 불 탄력 개선
-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 12.2%** 피부 탄력증 개선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페' 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올리브영 매장
[*사용 7일 후,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시험기간: 2023.01.26~2023.03.10) (시험대상) 성인 여성 30명 (시험기관) (전립선암연구센터)]

“은혜 속 마친 것 감사... 개선점도 있어”

뉴욕교협 부활절예배 평가회 개최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태규 목사)가 2일 교협 회의실에서 2024 부활절절연합예배 평가회를 가졌다.

이날 평가회에는 교협 임원 및 부활절 연합예배 지역장들이 모여 각 지역별로 진행된 예배의 현황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감사할 부분과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지역장들은 부활절연합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예배와 친교를 통해 각 지역별 교회들이 더욱 연합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면들을 보고했다. 또한 이날 친교를 위해 수고한 교회들 및 예배 준비위원들의 노고들도 함께 보고했다.

하지만 개선할 부분에 대한 의견도 개

진됐다. 대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교협 행사를 위해 지역교회들의 협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날 한 지역장의 경우 “지역에서 진행된 연합예배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교협 회원교회들이 거의 다 오지 않았다. 소속감이 부족한 것을 느낀다”면서 연합행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렸다. 또 다른 지역장의 경우에도 “해당 교회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연락을 해도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작은 교회들의 경우 부활절예배를 기점으로 크게 일어서기 위해 개교회적으로 행사를 집중해서 준비하는데 연합행사를 할 경우 힘이 분산되어 부활절



부활절연합예배 평가회 이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김대원 기자

연합예배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고한 지역장도 있었다.

이에 박태규 회장은 “현재 화합이 잘 되지 않은 뉴욕교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도 연결되는 내용”이라면서 “이 가운데

서도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활절을 함께 보낸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뉴욕교협 회원교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평가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이재용 목사(뉴욕갯세마네교회)가 ‘주님의 사연’(요20:19-2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목사는 “성령이 임하시면 큰 권능을 받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면서 “성령이 없으므로 내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이 의심하고 부인하는 마음이 있다. 부활 이후 강력한 성령이 각 교회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고난주간 중에 있었던 간증도 전했다. 뉴욕의 다른 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가 자녀의 문제로 인해 근심하면서 뉴욕갯세마네기도를 찾아와 3일을 밤낮으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결국 3일만에 응답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다.

이목사는 “비록 다른 교단의 다른 교회의 성도분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3일 밤낮 기도하는 것을 도와 저도 매일 밤 기

도를 교회에서 했다”면서 “그분이 응답을 받고 휘파람을 불면서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걱정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목사는 “성령님이 가라면 하시면 가고, 서리면 서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서 “행18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누구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교협은 부활절 새벽 6시 플러싱과 후레시메도우, 브롱스, 위체스터, 스테이튼 아일랜드, 롱아일랜드 등 뉴욕의 총 22개 지역에서 뉴욕교협 회원교회들이 연합해 부활절새벽연합예배를 진행했다.

김대원 기자

시애틀 형제교회 “부활의 증인으로 열방에 복음 전하자”

전 세대가 한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 드려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 성도들은 지난 31일 부활절 예배를 통해 열방을 향한 선교 비전을 재확인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을 다짐했다.

찬양과 설교 등 모든 예배 순서가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언어와 문화,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 된 성도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찬양했다.

또 시애틀형제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의 간증과 차세대들의 세대가 이어지며 부활절의 감동을 더했다.

이날 세 번의 예배를 드린 시애틀 형제교회는 영어권 티모티 이 목사가 3부 예배 설교를 영어로 전했다. 권준 목사 1

부와 2부 설교를 같은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한국어로 설교했다. 두 설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며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주문했다.

“열방이 예배하게 하라”(요한계시록 7:9-10)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티모티 이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며 “이 복음으로 거듭난 온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까지 만방에 복음을 힘차게 전파하자”고 전했다.

권준 목사는 “우리를 사랑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인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어떠한 상

황에서도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드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자”고 전했다.

한편 시애틀 형제교회는 올해 공동체 30일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절 예배 후 성도들을 위한 부활절 만찬을 마련했다. 음식은 시애틀 형제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의 선교지 음식으로 차려졌으며, 성도들은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선교지를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됐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교회가 준비한 부활절 에그헌팅과 페이스 페인팅으로 즐거운 한 때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부활절 특별 헌금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올해 단기선교를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어린이들은 다음 세대 교회의 천부장·백부장”

어린이 전도 폭발 세미나 개최

어린이 전도 폭발 (Kids Evangelism Explosion, Kids' EE, 설립자 제임스 케네디) 교사 세미나가 기쁨의 교회(LA Church of Joy)에서 3월 22일 오후 6시 30분~오후 9시 30분까지, 3월 23일 오전 8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Kids' EE의 트레이닝 리더인 크리스틴 톰슨(Christine Thompson)이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이 함께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의 관계자는 “어린이들을 영적 리더로 훈련하기 위해 이 세미나를 준비했다. 다가 오는 시대에 이들이 천부장, 백부장의 역할을 해낼 것이라 믿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민선 기자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어린이 전도 폭발) 교사 세미나가 기쁨의 교회(LA Church of Joy)에서 3월 22~23일(금,토)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LA ONE CHURCH

라카나다 아름다운교회 VBS 및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개최

라카나다에 있는 아름다운교회(이현동 목사, La Cañada Arumdaun Church, 104 Berkshire Pl. La Cañada Flintridge 91011)에서 오는 4월 20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VBS 및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어린이전도협회 한인지회(CEF KOC, 대표 여병현 목사)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VBS를 준비하는 방법(Everything You Need to know to Jumpstart VBS Planning), ▶ 오감을 통해 직접 경험

하는 VBS 공예 및 간식(VBS Craft & Snacks), ▶ VBS 교육 레벨 업(Tips for Level Up Your VBS Teaching), ▶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교사들의 영적 무장과 자기 관리(Stay Motivated Through Reflection & Spiritual Self-Care), ▶ 어린이의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을 위한 5가지 팀(5 Small Group Hacks to Change How You Teach And How Kids Learn), ▶ 어린이들이 가고 싶은 교회 학교 운영의 실제(How to Get Kids Excited For Church)를 다루게 된다.

강의는 모두 영어로 진행되며, VBS 교재가 무료로 제공된다. 등록비는 \$50.

문의: Okhee Lee (213-273-5534), 여병현 목사 (213-500-7890), cefkorean@gmail.com

김민선 기자



시애틀형제교회 부활절 예배 현장의 모습. ©교회 측 제공



시애틀형제교회 권준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교회 측 제공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번호 제24-082(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정보연차) 노란우산은 예금정보연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 제120조에 따라 정액 지급에 필요한 책임보험을 위해 매 결산까지 납부비용을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은교회, '화요 직장인 예배' 신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40분 예배 후 점심 식사 제공 주변 직장인들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의 접촉점' 기대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영은교회(이승구 담임목사)가 주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화요 직장인 예배'를 신설했다. 지난 4월 2일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 직장인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한 영은교회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40분 3층 본당에서 직장인 예배를 드린 뒤 참석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은교회는 원래 2018년 하반기 당회에서 직장인 예배 사역을 이듬해 초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타지면서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4년여가 흐른 후, 2023년 하반기 당회에 다시 직장인 예배에 관한 세부 계획을 올려 통과했으며, 3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2일 드디어 첫 직장인 예배를 드렸다.

영은교회는 화요 직장인 예배가 믿음의 직장인들이 주중에 찬양과 예배를 통해 힘과 위로를 얻고, 동시에 믿지 않는 동료들도 권면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전도의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영은교회 화요노방팀은 화요일마다 교회 주변에 나가 전도해 왔는데, 직장인들을 위한 전도 접촉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점심시간에 식당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직장인들을 보면서, 직장인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화요직장인예배팀(팀장 이숙영 권사·총무 장진아 권사)은 "화요노방팀이 전도할 때 어른이나 중년 이상의 주님들은 전도지를 잘 받아주시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있는데, 젊은 직장인들은 전도지도 대부분 거절하고 이야기 한마디 나누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라며 "직장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접촉점을 찾으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화요직장인예배팀은 "그렇다면 먼저 믿는 직장인들에게 주중에 한 번 교회로 나와 영적인 힘과 힘을 얻게 해주고, 또 그들의 믿지 않는 동료들을 권면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한다면, 그리스도 전 직장인에게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인 교사의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동료들은 예배의 자리로 인도되어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영은교회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점심시간에는 식당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직장인들을 보며 직장인 예배와 식사 대접이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화요직장인예배팀은 교회 내 봉사부, 시설관리부, 예배부, 음영부, 영상홍보부 등 부서별 협조 아래 올해 초부터 전도폭발 훈련자들과 전도부원들의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3월부터는 화요노방팀과 전도부원들이 교회 주변의 지식산업센터와 기관 등 점심시간에 식당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직장인들을 보면서, 직장인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지난 4월 2일 첫 예배에서 '함께 세우는 일대, 보살핌(신명기 24장 22절)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승구 영은교회 담임목사는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은교회로 오시기 바란다. 찬양과 말씀, 맛있는 식사도 준비되어 있



지난 2일 영은교회 첫 화요 직장인 예배에서 이승구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다"며 "화요일에 우리 모두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지난 2일 예배에 참석한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한직선) 최영분 사무국장은 "오랫동안 기도와 준비 끝에 영은교회에서 화요일 직장인 예배가 시작됐다. 모든 직장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될 수 있기 위한 영은교회의 노력을 축복한다"고 말했다.

화요직장인예배팀은 "일상에서도 예배의 감격을 원하시는 분,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 은혜로운 예배와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다"며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며 주변 직장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영은교회, 직장선교 위해 꾸준한 노력과 헌신 지속

영은교회는 한 목회자에 의해 설립된 교회라 아니라, 공단 근로자들로부터 개척된 교회이자 지역사회가 만든 공동체로 출발했다. 1960년 설립 당시 교회 주변 양평동 일대에는 동아염직, 대동모방, 대한모직 등 3~4개의 방직공장이 있었다. 당시 공단의 간부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 해 11월, 이후 영락교회

2대 담임목사가 된 박조준 목사가 초대목사로 부임했다. 1965년부터는 유치원을 개원하여 근로자 부부들의 자녀 양육을 도왔다. 또 영등포경찰서에서 관내 교회, 직장인, 주민들을 위해 시행하는 조찬기도회에 교회 여성중창팀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찬양으로 섬기고, 영등포구청 신우회에서는 부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근래에는 2021년부터 매년 부활절, 성탄절 때마다 교회 주변 카페들과 협업하여 직장인들을 위한 무료 커피 나눔을 진행했다. 한 번 봉사할 때마다 400~500잔씩 일 년에 1,000잔 정도의 사랑의 커피를 직장인들에게 나누었다.

코로나 기간에는 주변 병원들과 협업하여 직장인들을 위한 '무료 독감 백신 나눔'도 진행했다. 주변 상권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준 후, 병원마다 일정 비용을 약속하고 쿠폰을 가져온 직장인들이 무료로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영은교회는 "향후 영은교회 주변의 직장인들이 화요 직장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고, 직장인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힘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더불어 사명대로 산다' 출판 감사회 및 북토크쇼

도서출판 사도행전 '복음에 빛난 선교사 열전' 시리즈 여덟 번째 책 펴내

하도록 돕는 미래적 선교 모델로서 '포스트 크리스티안 선교'를 강조하며 한국교회 선교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선교사들의 사역 이야기를 시리즈로 제작해 온 도서출판 사도행전이 여덟 번째 책으로 강대홍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의



사역을 다룬 '더불어 사명대로 산다'를 지난 3월 초 펴냈다. 이에 KWMA와 도서출판 사도행전이 공동 주최 및 주관으로 오는 4월 9일 오전 10시 30분 '복음에 빛난 선교사 열전 8, 출판 감사회 및 북토크쇼'를 CTS기독교TV 11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40년간 태국 현지교회의 동역자로서 팀사역을 실천한 강대홍 선교사가 태국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훈련원 사역을 하고, 또 선교사 탐이 일과 재정을 나누고 자녀 공동 양육을 위한 기숙사 운영을 한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량적 선교, 크리스티안 선교가 아닌, 현지 교회 스스로 성장

이날 1부 출판 감사 예배는 KWMA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장 정용구 선교사의 사회로 송주인 장로(의정부 광명교회 태국사역팀장)의 대표기도, 최남수 의정부 광명교회 목사의 설교 후 강경철 CTS 회장, 장인식 태국 선교사(FMB), 전철영 GMS 선교사무총장, 김보현 PCK 사무총장의 축사, 오영철 태국 선교사(GMS), 양덕호 태국 선교사(GMS), 홍문수 신반포교회 목사의 축하 영상 상영, 이민교 선교사(글로벌블레싱 대표)의 환영사, 최남수 목사의 축사로 드러진다. 2부 북토크쇼는 김하은 씨의 헬로 연우(아나도 홍윤주 사모)에 이어 이한민 아르카출판사 대표가 저자를 소개하고, 저자 강대홍 선교사의 인사 후 북토크 등이 진행된다.

주최 측은 "선교사들의 사역 이야기를 귀하게 여기고 출판하는 사역과 더불어 KWMA를 섬기는 강대홍 사무총장의 선교현장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한인세계선교사지원재단, 컴미션과 업무협약(MOU) 맺어

한인세계선교사지원재단(KWCMF)은 지난 3월 29일 컴미션(Come Mission)에서 선교 협력 및 선교사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컴미션은 전신인 KFM(Korean Frontier Mission, 박재욱 선교사)가 2000년 이재환 선교사에게 사역을 이양하면서 2000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에서 설립됐다. 이후 한국과 호주, 프랑스, 캐나다에 지역본부들을 세웠으며, 현재 29개국에 10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한인세계선교사지원재단 대표 이영광 선교사, 컴미션 설립자이자 미국 국제본부 대표 이재환 선교사, 한인세계선교사지원재단 김민선 사무총장 ©한인세계선교사지원재단

컴미션은 미전도 종족 선교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설립자인 이재환 선교사는 1984년부터 15년간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로 사역했으며, 컴미션 설립 후에는 선교 동원 및 훈련 사역을 해왔다. 이영광 한국 지역본부 대표는 2005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2023년부터 한국 본부 사역을 해왔다.

KWCMF 김민선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컴미션 선교사들은 별도의 확인 과정 없이 선교사복지카드를 발급해 주고, KWCMF의 협력 병원 및 기관에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선교 협력 및 선교사 복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세계청소년동아리연맹, 벤처기업협회 전국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세계청소년동아리연맹(총재 김민섭)이 지난 5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회의실에서 (새)벤처기업협회 전국협의회(회장 권원현)와 청소년 인재 양성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양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기업을 정신 교육을 통한

능동적 인재 양성, 벤처기업 생태계 및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재 양성 및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인력 교류 및 제반 시설을 공유하고, 교류 협력 및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날 김민섭 세계청소년동아리연맹 총재는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소질 개발과 인성 교육,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있는데, 청소년 육성을 위해 기업과 기성세대가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원현 벤처기업협회 전국협의회 회장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재로 성장하는 등 기업이 정신의 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왼쪽부터 벤처기업협회 전국협의회 권원현 회장, 세계청소년동아리연맹 김민섭 총재 ©세계청소년동아리연맹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I400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해외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출 사업확대

Energy Up, Tomorrow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로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갑니다

EFI 보고서 “인도 기독교인 대상으로 한 폭력 급증”

인도복음주의연합(EFI)이 최근 '종교자유에 관한 최신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도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폭력과 조직적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601건 기록됐다. 이는 전년도의 413건보다 45% 급증했다.

EFI의 사무총장 비자예시 랄(Vijayesh Lal) 목사는 성명에서 "헌법적 보호와 인도의 오랜 종교 다양성 전통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종종 간과되거나 부적절하게 다루지는 분별적인 수사 및 선동적인 언어의 증가로, 사회 일부가 종교적 소

수자, 특히 기독교인과 무슬림에 대한 폭력과 차별 행위에 대해 더 많은 자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기독교인의 상황이 고 통스러운 수준으로 악화된 특정 지역을 강조했는데,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에서는 무려 275건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차티스가르(Chhattisgarh)도 132건이 발생해 또 다른 박해의 온상으로 떠올랐다. 보고서는 "국가는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강제 개종 혐의로 목사와 신자들을 체포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랄 목사는 "인도의 존경받는 종교적 다양성 전통과 소수 공동체의 권리를 보

호하는 헌법이 전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랄 목사는 공식 채널을 통해 침투한 분열적인 수사와 선동적인 언어의 증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로 인해 사회의 특정 부분이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대상으로 소수종교인에 대한 폭력과 차별 행위를 자행하도록 부추겼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강제 개종이라는 거짓 주장은 인도의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괴롭히기 위해 널리 오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개종금지법이 없는 주에서도 기독교인은 단순한 개종 혐의에 근거해 괴



인도 국기 ©pixabay.com

롭함을 당한다. 이 이야기는 차별을 위한 구실로 편리하게 사용되며, 전국의 소수 기독교인 공동체를 반대하고 박해한다"고 했다.

종교 개종 문제는 인도 전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주에서 개

종을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힌두 민족주의 정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 주는 오디샤(Odisha), 마디아 프라데시(Madhya Pradesh), 차티스가르(Chhattisgarh), 구 자라트(Gujarat), 자르칸드(Jharkhand), 히말라 프라데시(Himachal Pradesh),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 우타라칸드(Uttarakhand), 카르나타카(Karnataka) 및 하리아나(Haryana)다.

여당이자 힌두교도로 구성된 인도국민당(BJP)이 통치하는 주에서 특히 개종 반대법을 강력히 제정 추진했다. 감압이나 유인을 통해 개종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이 법은 인권단체와 소수종교인들로부터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종교 개종에 대한 논쟁이 격화됨에 따라 개종 반대법 시행은 정치적 발화점이 됐다. 야당과 인권 운동가들은 BJP와 그 동맹국이 인도의 세속적 구조를 훼손하고 소수종교인의 헌법상 권리를 축소한다고 비판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EFI는 인도 정부와 주 행정부에 우타르 프라데시, 차티스가르, 하리아나, 카르나타카, 마디아 프라데시와 같은 주에서 긴급조치를 통해 종교적 소수자를 보호하고 법치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명경 기자

펜스 전 미 부통령, 오는 6월 남침례회 총회 참석해 연설한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오는 6월 미국 최대 개신교 교단인 남침례회(SBC) 연차총회 오찬에 특별순남으로 참석한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 광장에서의 봉사: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대화'라는 제목의 이 행사는 SBC 윤리 및 종교자유위원회(ERLC)가 주최하며 미네아폴리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리는 SBC 연차 총회 기간인 6월 11일 열린다.

브렌트 레더우드 ERLC 회장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문제, 신실한 공공 봉사, 기독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통찰력 있고 도움이 될 행사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펜스 전 부통령이 오찬에서 연설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레더우드 회장은 "펜스 부통령과의 오찬 대화는 신앙과 정책 입안의 교차점을 만나며 성격과 신앙에 기반한 신념을 유지한 사람과 함께 이러한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레더우드 회장은 또한 CP와의 인터뷰에서 "ERLC가 유명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지만 펜스 전 부통령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이 이전 미국 최고위 관료 중 한 명이었던 누군가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독특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6월 펜스 당시 부통령은 텍사스주 달러스에서 열린 SBC 연차총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극동방송

회에서 연설을 했고 일부에서는 그의 발언이 노골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CP는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당시 달러스에 모인 참석자들에게 "이 나라를 가장 위대하게 갱신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대통령의 부통령직을 맡게 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특권"이라고 말했으며 대부분의 SBC 총대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지난 500일 동안 국내외에서 우리가 이룩한 진전, 더 강한 미국, 더 강한 경제, 우리 헌법에 보장된 신이 부여한 자유에 대한 더 강한 헌신을 볼 때,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를 요약하면, 500일의 행동, 500일의 성취, 500일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했다.

SBC 북미선교위원회 연구자원개발 부대표 트레빈 왁스(Trevin Wax)는 당시 트위터에 "SBC가 45년 전부터 가끔 정치인을 환영한 것은 않지만, 이와 같은 본격적인 캠페인 연설이 있었는가?"라고 글

을 남겼다.

올해 SBC 회장 후보로 지명된 노스캐롤라이나 클린트 프레슬리 목사는 2018년 당시 트위터에 "나는 미국을 사랑한다. 마이크 펜스를 좋아한다. 나는 이것이 싫다"라는 글을 남겼다.

레더우드 회장은 펜스 전 부통령이 더 이상 공직에 있지 않거나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오찬 행사는 2018년 연설과 다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펜스 전 부통령은 공직자로서 중요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그가 공직을 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이 진정으로 우려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사역할 때 봉사할 수 있는 풍부한 대화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행사에 참석하는 사역 지도자들이 기쁨과 어려움을 포함하여 공직에서 봉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열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명경 기자

블링컨 “인도주의 지원 허용 노력 결과로 확인할 것”

“인도적 지원 허용하려는 이스라엘 최근 노력 환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팔레스타인 가지지구로 향하는 지원을 늘리기 위한 이스라엘의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그 결과를 보겠다고 압박했다.

5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벨기에 루뱅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가지지구에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려는 이스라엘의 최근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 여부는 현장 상황 개선의 결과로 가능할 것"이라며 "실제로 증거는 결과에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 며칠, 몇 주 안에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이 가지지구로 진입하는 트럭 수와 기근 위험의

악화와 같은 구체적인 지표들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이 공습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십자포화에 휘말린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이 계속되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스라엘 총리실은 안보 내각이 가지지구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인도주의적 구호품 수송을 위해 이스라엘 중부 아슈도드 항구를 임시 개방하고, 가지지구 북부와 맞닿아 있는 에레츠 교차로를 개편 후 처음으로 열기로 했다.

요르단에서 가지지구 남부 케렘 샬롬 교차로를 통해 들어가는 원조 물량도 늘릴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에서 지난 1일 이스라엘군이 구호단체 월드센트럴(WCS) 차량을 폭격해 직원 7명이 사망한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은 이스라엘이 민간인과 구호 요원을 보호할 새로운 조치를 내놓을지에 달려있다고 조건부 지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블링컨 장관은 "WCK(폭격사건과 관련한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도 살펴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명동 기자

“세계식량가격지수 오름세 전환… 지난해 7월 뒤로 처음”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이 지난해 7월 뒤로 처음 오름세로 돌아섰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8개월 만에 이 같은 변화는 식용유 가격이 상승한 탓에 일어났다. 곡물 가격이 계속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제품이 식량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달 118.3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1.1% 오른 것이다. 연간 비교로는 7.7% 내렸다.

식물성 기름 하위지수는 한 달 동안 8.0% 상승하여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FAO는 팜유, 대두유, 해바라기유, 유채유 가격이 모두 상승했다고 밝혔다.

팜유 가격 상승은 동남아시아의 강력한 수요와 주요 생산국의 계절적 생산량 감소 탓에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달 유제품 가격은 월간 기준으로 2.9%, 유류 가격은 1.7% 올랐다.

반면 곡물 가격은 월간 기준으로 2.6%, 설탕 가격은 5.4% 내렸다.

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95개)을 조사해 5개 품목군(곡물, 유제품, 유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발표한다.

2014-2016년 평균값을 100으로 이보다 높으면 인상, 낮으면 하락으로 평가한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2022년 3월 160.3으로 최고조에 달한 뒤 하락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지난해 7월 124.6을 기록한 뒤 그다음 달부터 세계식량가격지수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동 기자

인천환경공단
ENVIRONMENTAL COOPERATION OF INCHON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환경도
경민도
도시활
도시짜

안전 지키GO!
전국 첫 도시침수 예방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자원 다시쓰GO!
공기질 선도 공단
폐기물 자원순환 100% 달성

기후변화 맞서GO!
2030 온실가스 83% 감축,
기후변화 선제 대응

서비스 올리GO!
환경교육 인프라 및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IBK 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561호(2024.03.20) 유효기간(2025.03.19) •대출통로 BOX관련 자세한 문의는 BOX고객센터(☎02-729-7633) 혹은 IBK고객센터(☎1566-2566)으로 연락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은행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OPEN

당행 거래고객이 아니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O2O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은행이 알아서 연락하는 O2O 대출 서비스

ONE-STOP

복잡하고 다양한 대출심사 서류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제출



대출신청 바로가기

자유통일당 광화문 집회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장경동·장학일·임동진 목사 등 발언

자유통일당이 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유발언자로 나선 자유통일당 대표 장경동 목사(대전중문교회)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이 생겨야 한다. 하나님이 태극기 부대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이라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장 16절)는 말씀을 제일로 좋아했다. 그러나 요새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에베소서 2장 8절)를 가장 좋아한다. 이 나라엔 하나님의 선물이 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은 진리”라며 “그러나 어떤 사람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한다. 그 사람이 왜 이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하는가. 왜냐면 애절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투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줄 믿는다.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투표해서 나라에 하나님이 대사를 행했다는 간증이 생기는 올해 총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했다.

이어서 자유마을 총재 장학일 목사(예수마을교회 담임)는 “이 광화문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곳으로 모여야 한다”며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가두었으며(막 8장 8절)라는 말씀을 좋아한다. 광화문에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기적이 일어날 줄 믿는다”고 했다.

특히 “여러분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마가복음 8장 8절의



자유통일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개최한 집회 모습. ©박용국 기자

말씀을 통해 일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자유발언자로 참여한 배우 임동진 목사는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이렇게 광화문 아스팔트에 나온 애국시민들의 열정과 나라 사랑, 하나님이 다 받으실 것”이라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다. 하나님나라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라고 했다.

그는 “단상 위에 오른 것은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운명이 3일 남았기에 순종하고 나왔다”며 “대한민국 애국시민뿐

만 아니라 해외에서 피땀을 흘리며 우는 애국 동포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임 목사는 “얼마 전 국민가수 나훈아가 소크라테스 이름을 부르며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라고 노래를 불렀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훈아 씨 노래를 들으며 공감했다”며 “얼마 전 사랑하는 선배를 만나서 저도 ‘대한민국 왜 이래라고 물었더니, 그 형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라고 했다”고 했다.



장경동 자유통일당 대표(맨 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박용국 기자

임 목사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되묻자, 선배는 ‘열심히 일한 죄 때문에 그래’라고 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죄인가”라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주사파·종북세력이 대한민국 기동 속속들이 파고드는 순간을 모르고 열심히 일하면서, 내 자식들 공부 열심히 시키고 이 나라 일꾼 만드느라 한 눈 팔지 않은 죄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며칠 남지 않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시간, 대한민국의 청춘을 되찾자”며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워지자”고 했다.

한편 자유통일당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 공표기간 마지막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5~6% 지지를 유지될 경우 비례대표 46석 중 최대 3석까지 가능하다”며 원내 진출 가능성을 높게 내놓아 이슈가 됐다.

노형구 기자

국민의힘, 야권 후보 논란 적극 공략하며 ‘막판 반전’ 노린다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을 사흘 앞두고 범야권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막판 전관예우 등 각종 논란을 집중 공략하

며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다. 여당 측은 내부 약재가 정리되고 있는 반면, 야권 후보들의 잇단 논란으로 중

도층과 2030 세대의 표심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접전지에서 지지율이 오르는 등 반사 이익을 얻

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개헌 저지선(101석)을 넘어 현재 의석보다 많은 110석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범야권의 ‘200석 대물림’ 움직임

에 위기감을 조성하며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한동훈 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전국을 누비며 범야권 후보들의 자질을 거론하며 심판론을 제기했다. 특히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후보의 ‘성상삼’ 의혹 등을 언급하며 여성 표심 결집에도 나섰다.

현장에서도 “민주당은 여성 혐오, 성희

롱 정당”이라며 야권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 관계자와 지역구 후보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현재 국민의힘은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55곳을 3~4% 포인트 내외에서 접전을 벌이는 격전지로 보고 있으며,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박용국 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 경북 농촌으로 오이소!

경북농촌체험관광 통합포털 **오이소**는 농촌체험·관광·여행·음식·숙박 관련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동감 있는 여행 및 관광지 정보 제공
여행객의 목적지, 여행기간, 소요예산, 여행 목적, 여행 방법, 최적의 Package Tour 스케줄 안내 등 여행정보를 제공합니다.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득한 소통창구
SNS 공유, 리뷰 등록, 오이소 기자단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의 공유가 가능한 소통의 창구를 제공합니다.

경북농촌체험관광 홍보 콘텐츠 제공
경북농촌체험관광 통합포털에서는 영상, 사진, 글, 그림 등 다양한 정보 및 홍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체험·관광상품 판매
최신 트렌드, 감성, 테마, 스토리가 반영된 체험·관광·음식·숙박 축제 등의 체험상품을 판매합니다.

www.gbois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동훈 “이재명, 입만 열면 거짓말... 삼겹살 안 먹고 먹은 척해야 할 이유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늘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세에서 “이재명 대표가 범인카드로 과일, 샴푸 등을 구매하고 제사비까지 범카로 쓴 것을 계속 얘기했지만 입 벌고 않는”이라며 “그런 위선으로 살아온 걸 알고도 그에게 권력을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이 대표의 ‘삼겹살 계시물’ 논란을 거론하며 “왜 굳이 삼겹살 안 먹고

먹은 척을 해야 하나. 그래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정책 공약에서도 차이를 봐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내년 대전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과학 R&D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며 “50보 차이를 보라”고 거듭 상대 정당과의 차별성을 내세웠다.

박용국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대전 유성구 노은역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대전살리기’ 지원유세에서 대전지역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재명 “충직하지 않은 권력 심판해야... 투표 포기는 민생 포기”



제22대 총선 인천 계양을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인천 계양구 계양산 전통시장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마치고 유세차량에 탑승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인천 유세에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진다”며 “투표 포기는 곧 민생 포기와 같다. 윤석열 정권에 국민이 무서운 존재라는 걸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4월 10일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날”이라며 “충직하게 일할 일꾼을 뽑은 것일 뿐”이라고 강조

했다. 이어 “일꾼이 주인을 거역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시민이 “거짓말 좀 하지 마라”고 항의하자 “의견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한다는 진리”라며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각자 선택에 따라 포기하지 마라”며 “주권 포기 시 가장 저질의 인간에게 지배받는다는 플라톤의 말씀”이라고 거듭 투표를 촉구했다.

박용국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 31.28%

투표 열기 뜨거웠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6일 진행된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31.2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율 26.69%를 4.59%포인트나 웃도는 수치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유권자 4428만여 명 중 1384만여 명이 참여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가까이가 미리 투표를 마쳤다는 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

의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1.19%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대구는 25.60%로 가장 낮았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30%를 넘는 투표율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고른 투표 참여가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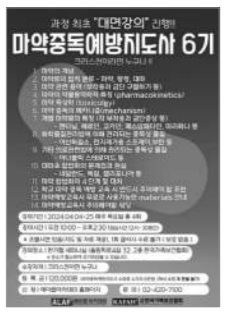
한편 이번 사전투표 투표율은 2년 전 대선 투표율 36.93%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록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로 국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컸음을 잘 보여줬다. 박용국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데시앙 7블럭아파트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시스

에이랩·한가협, 4일부터 제6차 마약중독 예방지도사 과정 시작

에이랩이 카데미와 한국가족보건의협회에서 제6차 마약중독 예방지도사 과정을 개강한다. 해당 지도사 과정은 한가협 세미나실에서 4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4시 동안 과정 최초로 대면으로 진행된다. 한국가족보건의협회 김지연 대표가 전담으로 강의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마약의 개념 △마약류의 법적 분류 △마약의 부작용과 금단 구별하기 등 마약 관련 용어 △마약의 약물동역학적 특징



(pharmacokinetics) △마약 독성학 (toxicology) △마약 중독의 메커니즘 △펜타닐,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마리화나 등 개별 마약류의 특징 △아산화질소, 먼지제거용 스프레이, 부탄 등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중독성 물질 △기타 의약품에 의해 관리되는 중독성 물질 △네덜란드, 독일, 캘리포니아 등 해외 사례로 보는 대마초 합법화의 문제점과 현실 △마약 합법화 4단계 및 대처 △학교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표현 △마약 예방교육 시 무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 안내 △마약 예방교육 시 주의해야 할 워딩 등이다. 이에 대해 마약 예방 교육 노하우도 교육될 예정이다. 마약중독예방지도사 과정은 2022년

겨울 1기를 시작으로, 2024년 1월까지 비대면 줌(zoom) 앱을 이용한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됐다. 총 800여명의 마약중독 예방지도사를 배출했다. 이번 6기 과정은 현장 대면강의로 최초로 진행된다. 한가협은 강의를 통해 마약중독의 심각한 위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광주 숙박업소에서 마약 투약 후 난동을 부린 20대, 태국 방콕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마약 담긴 영양제 캡슐 130정 들어온 남성 적발, 강남 한복판을 활보한 30대 마약 투여 작곡가 최씨를 긴급 체포 등 국민들의 마약 중독 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처럼 차세대가 자라고 있는 학교와 교회, 가정에서의 마약 예방 교육에 대한 요구가 절

실해지는 가운데 마약 예방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자 문의해 오는 학교와 단체가 증가했다. 한국가족보건의협회와 에이랩이 카데미는 이에 발맞춰 3년째 전문 강사를 양성, 파송하게 됐다”고 했다. 이 과정은 이수 후 마약중독예방교육 현장에 바로 강사로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매 수업시간마다 진행되는 전문적인 교육 내용과 과제 등 현장 투입이 가능한 마약중독예방교육강사 양성하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됐다. 이러한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은 마약중독예방지도사 수료증을 받고, 바로 교육현장에서 마약중독예방강사로서 투입될 수 있다. (사)한국가족보건의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는 “예방 교육을 제대로 받은 아이는

마약을 손에 쥐어 주어도 신고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는 마약에 쉽게 빠지게 된다. 마약 중독이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우선이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이라며 “이 과정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와 교회 그리고 생활 현장에서 마약의 폐해와 위험성을 철저히 깨달아 마약중독에 노출되지 않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오히려 호기심만 증폭되는 허술한 마약 예방 교육이 아니라 철저하고 전문적으로 마약에 대해 배우고 단 한번의 마약 시도조차 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전문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해서 1차 과정을 시작했고 어느덧 6회 개강까지 오게 됐다”며 “많은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성화미래연구소를 통해 부산 및 경남 일대 차세대 성교육 및 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는 김숙희 소장은 “한국가족보건의협회의 마약 예방 교육 수료 이후 교육청 위촉강사로 임명돼 지역 사회 공교육 현장에서 수 십차례 중독 예방 교육을 하게 되었고 교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며 “이후 많은 유망한 마약 예방 교육을 받고 수료했는데 한가협의 마약 예방교육은 그 어떤 마약예방 교육과정보다 탁월했다”고 했다. 이어 “같이 수료한 교육자도 현재 학교 강의 현장에서 활발히 마약 예방 활동 중이다. 현장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교육이기에 전 국민이 마약 예방 강사가 되길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노형구 기자

총선 앞두고 여야, 민생회복 공약 넘쳐나... 재정 부담 불가피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으로 5세부터 무상보육 지원금을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가 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해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현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1억원 주택자금 대출과 자녀 수별 반값 아파

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방식의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도 제시했다. 위성정당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까지 내걸었다. 여야는 저출산과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책자금 확대, 세제 개편 등으로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 주요 세제를 두고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기업 경영 지원을 이유로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야권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남은 임기 3년간 정책 기조도 큰 변화를 맞을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박용국 기자

반도체 수출, 21개월 만에 회복세

올해 '슈퍼 사이클' 기대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회복세를 이어가며 21개월 만에 호황기 수준을 회복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슈퍼 사이클'까지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반도체 수출액은 11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123억 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회복한 수준이다. 2022년 한 해 반도체 수출액은 1,29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같

은 해 3월에는 131억 달러를 수출해 단일 기준 최고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이후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부침을 거듭하다가 급기야 지난해 1-2월 60억 달러까지 내려앉으며 '바닥'을 찍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수요 증가와 경기 침체가 반도체 수출의 호황과 불황을 주기적으로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체들의 적극적인 감소로 공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최근 반등할 수 있었다는 게 중론이

다. 아울러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중국 재고 소진, 생성형 AI 등 신규 수요 창출도 반등 요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단순 가격효과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과거 사이클보다 더 극심했던 고공기를 감안하면 이번에는 충분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주춤했던 반도체 수출이 하반기에는 크게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연 올해가 새로운 '슈퍼 사이클'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나래 기자

정부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2010년 이후 최저”

“올해 1727만톤 더 감축 전망” 정부는 지난 7일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에는 주요 4대 부문에서 전년 대비 약 1727만 톤이 추가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환경부에 따르면, 원전 복원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무탄소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2022년 전

환 부문 배출량이 전년 비 4.4% 감소한 2억1390만 톤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2억400만 톤으로 2022년보다 4.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과 비교하면 무려 24.1%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는 2018년 이후 무탄소발전 증가량이 68.1테라와트시(TWh)로 전력 소비 증가분을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원전 47TWh, 신재생 21.1TWh가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무

탄소에너지 주류화' 확산을 국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영국, 일본 등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이행 중이다. 정부는 “보다 강도 높은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 100대 기술' 개발, 수소환원제철 실증 등을 추진하고 산업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자금 450조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MIT 학술지는 한국을 76개국 중 8위, 아시아에서 유일한 '녹색 선도국'으로 평가했다. 이나래 기자

우주항공청 개청 두 달 앞두고 '인재 영입' 총력전

우주항공청 개청을 두 달 앞둔 가운데 정부가 핵심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 채용이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임기제 공무원 150명, 일반직 143명 등 총 293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우선 5-7급 임기제 연구 인력 50명 채용이 진행 중이며 평균 16대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직은 과기정통부 52명, 산업부 3명

등 기준 인력 55명을 활용할 계획이다. 청 소재지 이전에 따른 각종 지원책도 마련했다. 가장 큰 과제는 청장과 간부급 공무원 선발이다. 간부급 18개 직위에 대한 수요 조사가 15일까지 이어지며, 정부는 R&D를 진두지휘할 '임무본부장' 자리에 2억 5000만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등 과격적인 대우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간부급 수요조사 지원자가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원 채용 때와 같이 마지막에 몰

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293명 정원을 모두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반기 50명, 하반기 100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고 타 부처에서도 인력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장 인선도 관심사다. 총선 이후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간부급 공무원 후보군과 시기를 맞추는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찾기가 난제로 지적된다. 이나래 기자

봄 식후 무력감·졸림, '춘곤증'인가 '혈당 스파이크'인가

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식후 피로감과 졸림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춘곤증이나 식곤증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지속된다면 혈당 관리 문제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건강관리 기업 필라이즈에 따르면 식후 혈당 수치가 급변하는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합병증 위험이 있다.

춘곤증은 봄 계절 변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지만,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락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성 저혈당 증상이다. 필라이즈 데이터 분석 결과 탄수화물 함유 식품 섭취 시 혈당 스파이크 발생 확률이 높았다. 김밥 62.1%, 고구마 59.9%, 떡볶이 59.3%, 흰쌀밥 50.8%의 발생 확률을 보였다.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는 인슐린 분비 문제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혈당 조절력을 떨어뜨린다. 당뇨 전단계와 당뇨 환자에겐 합병증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필라이즈는 식단의 탄수화물 비율을 낮추고 식후 산책 등으로 혈당 상승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혈당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연속혈당측정기(CGM) 활용을 권유했다. 이나래 기자

동아보감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갱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아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안전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일민의원약품 | 광고심의필 | 2023-1688-003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청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학생인권법에 동성애가 웬말이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연합, 조국혁신당은 미나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2024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서동용(더불어민주당), 권인숙(더불어민주당연합), 김남국(더불어민주당연합), 김의겸(더불어민주당연합), 윤영덕(더불어민주당연합), 김경만(더불어민주당연합), 황운하(조국혁신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뻔뻔하게도 발의자들이 아주 나쁜 의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수기총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충남, 서울, 광주광역시 등 현재 7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그런데 이러한 폐지 운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로 만들어 아예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못하게끔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 법안에는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심화, 확대하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다.

첫째, 성적 지향(동성애, 양성애 등), 성별 정체성(성전환)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안 제8조)이 들어가 있는데, 이 조항은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학교에서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成績), 거주지역 또는 형태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동성애 등 다양한 성**

둘째, 이 법안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등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안 제15조 제2항), 최근 급증하는 교내 마약 사용과 흥기 사용 폭력 등의 예방을 약화시켜 교육환경을 저해하며, 학생들의 안전권을 침해한다.

셋째, 안 제16조 제1항은 성적 지향 등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학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성향을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 이 조항은 현행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항으로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학교가 미성년자 학생의 동성애나 성전환 성향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을 강민정 의원이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넷째, 미성년자인 학생의 집회의 자유 보장(안 제19조 제3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며, 학생들이 정치적 선동을 당하게 될 위험이 크다.

다섯째, 학생 인권위원회,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설치하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유발하고 있는 폐해와 동일하게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

여섯째, 학생들의 휴식 침해 금지(안 제12조 제3항)는 휴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남용될 소지가 크고, 기초학력 저하 등 부작용을 가져온다.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교실 붕괴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일곱째, 특정 종교 배척 또는 강요 금지(안 제18조 제3항)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법안에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전혀 없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초중고 학교에서의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이 너무나 심각해서, 이러한 폐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아동보호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회부 서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만약 제22대 국회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러한 학생인권법안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학교가 초중고 학생들의 동성애, 성전환 성향을 학부모들에게 숨기게 됨으로써 부모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다.

이 법안 발의는 2024년 3월 중순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직후 나왔다. 점에서 거대 야당이 진보진영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의 공약이후 출범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출범식 모습(2024.4.25)

우리는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연합,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악법에 해당하는 학생인권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불응 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8일

● 주최: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https://sugichong.or.kr>

● 참여단체 : 건강한국기독교총연합회, 새한국교회연합, 새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새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새한국기독교개혁신교회연합회, 새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새대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가평군기독교총연합회,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과천시기독교총연합회, 광명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총연합회, 구리시기독교총연합회, 군포시기독교총연합회, 김포시기독교총연합회,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동두천시기독교총연합회,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안산시기독교총연합회, 안성시기독교총연합회, 안양시기독교총연합회, 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양평군기독교총연합회, 여주시기독교총연합회, 연천군기독교총연합회, 오산시기독교총연합회,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의왕시기독교총연합회, 의정부시기독교총연합회, 이천시기독교총연합회, 파주시기독교총연합회, 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 포천시기독교총연합회, 하남시기독교총연합회, 화성시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사)한국장기총동본부,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반동성애기독교민연대, 반동성애국민연대, 17개광역시도와법대응본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제자광성교회, GMM연합, 국민주권행동,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회, 한국교회반동성애 교단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옴은기차시민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한애국가독청년단, 바른문화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교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감리회기록성화복합회의, 국민을위한대안,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사회를위한국민연대, 청주미래연합, 복음법률가회, 바른여성인권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옴은학부모연합, 교육맘들,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외 1,200개 시민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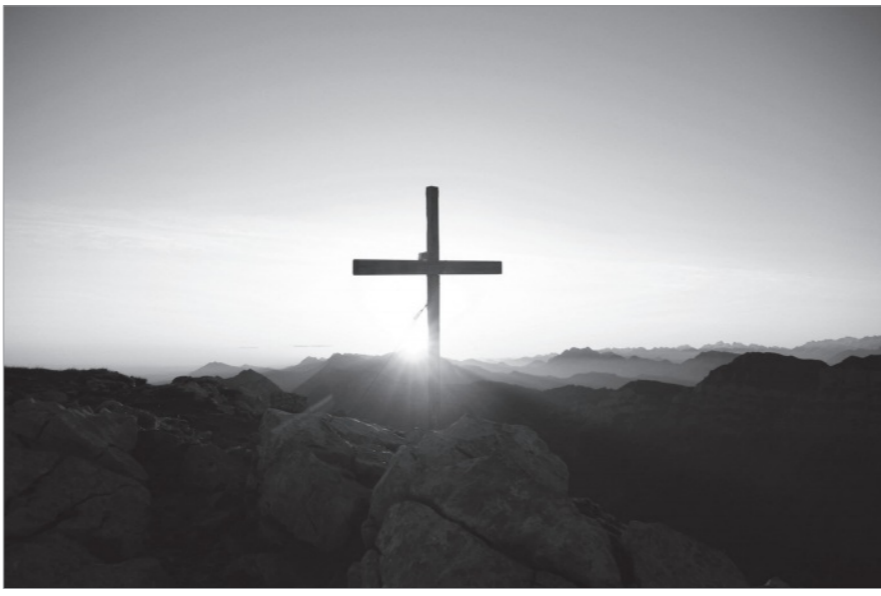
문의: 수기총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 010.5393.1981

후원: 농협 301-0310-9162-21 (예금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매일묵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2)**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 뱀에 물려 죽어가듯이 우리가 범죄 하여 마귀에게 물려 죽어가게 된 자들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사망의 규렁탕이에 지옥의 규렁탕이에 빨리 들어가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죽음과 죄의 값을 영원토록 지옥에서 치러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사망이 왕 노릇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자리 가운데 이 죄로 인한 죽음의 운명, 죄로 인한 비극적인 운명에 예외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떤 선한 사람도 이 땅에 의인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구할 정도로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모두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죄의 형벌,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드러나는 죄가 크든 작든지 이미 원죄가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서 죄인의 형벌, 죄의 삯인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를 가르쳐주신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라"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구원에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라"입니다. 이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구리 뱀을 장대 끝에 달린 그 뱀을 쳐다볼 때만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범죄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들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 우리의 고통의 한복판 가운데 함께하시고 나타나 더 아파하시고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신음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계신다"는 말씀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서 마음이 크게 열렸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가는 나를 향한 막대한 사랑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항변과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남아있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감정이 남아있습니까? 그것은 진실로 이 십자가의 큰 사랑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 우리 고통의 한복판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저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입은 작은 상처에도 저의 마음에 더 큰 상처로 남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하물며 우리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상처, 작은 고통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아파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히브리서에 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나라.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 고통을

동정하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의 자리로 내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당신의 귀한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우리 대신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 저주의 자리로 내몰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 그것을 대신해서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로 대신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서도 살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값비싼 구원, 그 아들의 피 값으로 산 구원을 우리의 보잘 것 없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에게 등 돌리고 당신의 사랑을 저버리고 범죄 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신 세계, 이는 분명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비싼 값을 치른 것입니다. 가장 힘든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로 인해,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가 값없이 임했고 우리가 죄로 인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는 은혜의 세계, 희망의 미래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진정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감정, 모든 반신의 감정이란 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베풀셨는가를 보지 못하고 그냥 나에게 처한 현실의 아픔과 고난으로 인해 그것을 하나님께 전가하기 때문에, 잘 못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이제 그 모든 감정과 오해들이 아들의 십자가 앞에서 눈 녹듯이 사그라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십자가 앞에서 서야겠습니다. <계속> 서광고회 제공

바이블지식IN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가? (1)

기쁨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지만, 종종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조차 기쁨이 없는 기간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은 그가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랐습니

다(욥기 3:11). 다윗은 현실을 대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옮겨지기를 기도했습니다(시편 55:6-8).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여 패배시킨 후에도 (열왕기상 18:16-46), 사막으로 피신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시기를 청하였습니다(열왕기상 19:3-5).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선, 기쁨은 행복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행복은 상

황에 따라 바뀌며 덧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마음 자체입니다. 헬라어에서 기쁨의 어원은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Charis)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은총을 인식할 때 옵니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기쁨을 경험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골로새서 3:2).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나 우리의 만족을 빼앗아 가는 것들에 마음을 쏟는 대신, 하나님께 마

음을 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불만을 부정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짊어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분노를 보여 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을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누구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편, 13편, 18편, 43편, 103편은 좋은 예입니다. <계속>

갓케스천스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John 1:12 NIV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 yet (접속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 all who : ~하는 모든 사람들
- receive : 환영하다
- those who : ~하는 사람들
- believe in : (누군가 확실하게 존 재하며 신뢰할 수 있으므로) 믿다

- right : 권리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그를 환영한 모든 사람들, 그의 이름을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광동 초이스 CHOIS PREMIUM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키친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광동제약 전속모델

반세기 광동의 폭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 선착순 500명 한정!}

*충정음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쌍향의 진향 정성, 광동 쌍회진 30포 1박스 추가 증정!

Kwangdong

제조 · 판매원 : 광동제약(주)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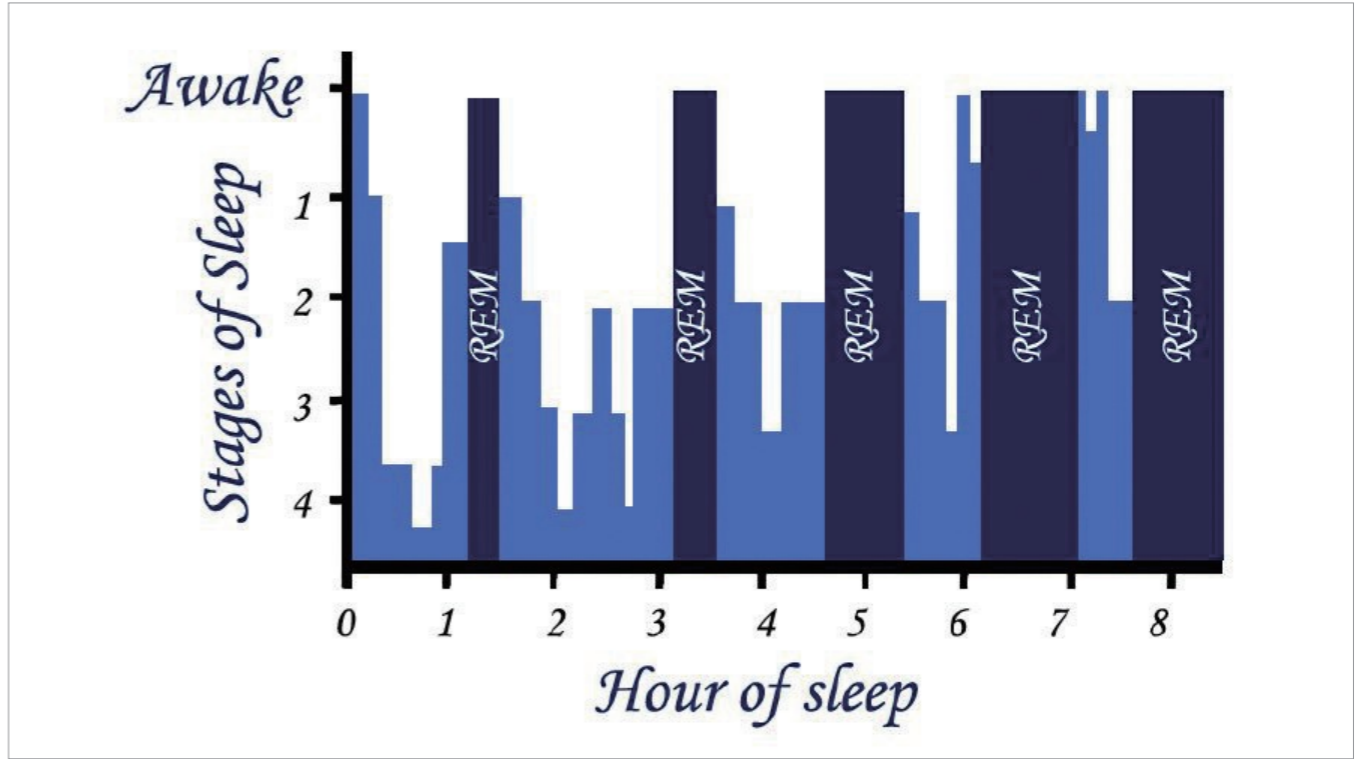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스롤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정성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뇌치유상담 뇌를 알면 수면이 보인다



뇌는 적당한 수면을 필요로 한다. 사람들은 보통 7-8시간의 수면이 적당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수면이란 필요에 따라 가감될 수 있어서 엄격하게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휴식을 취하는 1일의 리듬 생활을 한다. 즉 명암의 빛 리듬에 동조하는 생활을 한다. ©pexels

렘수면 그래프. 잠들고 나서 3시간 정도 사이에 비렘수면인 깊은 잠에 빠져든다. 거의 90분 간격으로 렘수면과 비렘수면이 교대로 4-5회 반복된다. 아침이 가까워지면 비렘수면도 알아지고 렘수면은 40-60분 간격으로 빈번해져서 깨어나기 쉬워진다. 렘수면은 신체는 잠자고 있으나 꿈을 꾸거나 안구가 움직이는 등 뇌는 깨어 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bedzine/flickr

손매남 박사의 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손매남 박사

“내가 평안히 늙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시편 4장 8절
잠은 깊은 잠과 얇은 잠의 리듬으로 이루어진다. 잠자는 동안에 뇌와 몸은 보통 쉬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실은 그렇지 않다. 잠은 깊어졌다 알아졌다 하는 리듬이 있고, 성질이 다른 두 종류의 잠이 있다. 그 하나는 뇌도 잠잔다고 할 수 있는 상태이다. 뇌파를 보면 뇌의 활동이 휴식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잠의 리듬으로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해당한다

◆ 손매남 박사
한국상담개발원 원장
경기도 뇌심리상담전문연구원 원장
美 코헨대학교 국제총장
국제뇌치유상담학회 회장

다. 맥박과 호흡은 느려지고 규칙적이 되며 조용하게 잠들어 외부 자극으로 쉽게 깨어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뇌가 약간 활동하고 있어서 뇌파를 보면 빠르고 잠의 리듬으로는 얇은 잠 상태이다. 이 시기에 꿈을 꾸고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때를 급속안구운동수면, REM(렘)수면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급속안구운동이 없는 잠을 NREM(비렘)수면이라고 한다. 이처럼 잠을 잔다는 것은 렘수면과 비렘수면이 반복되는 것이다. 우선 잠자리에 들면 전신의 근육은 이완되고 머리가 멍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빠르게 잠에 빠져든다. 이것이 잠의 제1단계이다. 이 시점에서 깨어나면 자신이 잠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단계에서는 호흡과 맥박은 느려지고 근육은 이완된다. 제2단계는 조용하게 잠든 상태로, 이 시점에서 깨어나게 되면 정신이 맑아질 때까지 2-3초 걸린다. 그래서 자신이 잠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잠들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면 제3, 4단계가 되는데 뇌파는 진폭이 커지고 느리게 된다. 이때는 깊은 잠에 빠진 상태이다. 아주 깊은 잠에 빠진 후 30분 정도 지나면 다시 제3, 2, 1단계로 되돌아간다. 잠자는 동안에 이 같은 리듬이 반복되는 것이다. 잠의 제1단계 때에는 팔다리의 근육은 힘이 빠져서 마비 상태처럼 된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안구가 좌우로 빠르게 움직인다. 물론 이 단계도 잠자는 상태이다. 잠자는 동안에도 뇌는 활발히 움직이고 신경세포의 재생도 일어난다. 잠자는 동안 뇌는 활발하게 활동하며 안구에 명령을 내린다. 이 단계에서 뇌는 안구에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도 명령을 내려서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지고 얼굴이나 손발이 꿈틀꿈틀 움직인다. 이 단계가 렘수면이다. 잠들고 나서 3시간 정도 사이에 비렘수면인 깊은 잠에 빠져든다. 거의 90분 간격으로 렘수면과 비렘수면이 교대로 4-5회 반복된다. 아침이 가까워지면 비렘수면도 알아지고 렘수면은 40-60분 간격으로 빈번해져서 깨어나기 쉬워진다. 렘수면은 신체는 잠자고 있으나 꿈을 꾸거나 안구가 움직이는 등 뇌는 깨어 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렘수면은 깨어날 준비 상태라 할 수 있어서 깨우면 쉽게 깨어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48시간 정도는 잠을 자지 않아도 정상적인 뇌 활동이 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게 된다. 그러면 왜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신경세포는 다른 신체조직의 세포와 달라 일단 망가지면 재생될 수 없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잠을 잔다는 것은 뇌를 보충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잠을 자지 않는 동안에도 뇌파의 기록

을 보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수면뇌파가 기록된다. 이를 미세 수면이라고 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전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뇌는 적당한 수면을 필요로 한다. 사람들은 보통 7-8시간의 수면이 적당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수면이란 필요에 따라 가감될 수 있어서 엄격하게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처해진 환경에 따라 각자 정해진 범위의 리듬 생활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휴식을 취하는 1일의 리듬 생활을 한다. 즉 명암의 빛 리듬에 동조하는 생활을 한다. 그 밖에 7일 동안에 하루를 쉬는 주간 리듬, 춘하추동의 4계절 리듬도 사람들의 생활을 규정한다. 여성의 경우 약 1개월을 주기로 하는 생리 주기도 생활 리듬의 하나이다. 이같이 빛이나 기온 또는 습도 같은 외부의 물리적 환경이 생활 리듬을 규정하나, 내분비(호르몬)라는 생체축의 주기성도 생활 리듬을 규정한다. 사람의 활동은 밤낮의 변화나 달 또는 계절의 변화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그 주기성은 생체의 생물학적 활동의 주기성과 일치하게 되어 있어 결코 자연현상의 변화만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생체에는 시간을 알리는 시계가 있어서 생체 활동의 변화를 조절한다. 이 시계를 내인성리듬 또는 체

내시계라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뇌의 시교차상핵이다. 잠자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송과체에 분비되는데 1-2시간 이후가 되면 잠이 들게 된다. 이 시계와 환경으로부터의 입력에 의하여 형성되는 생체 리듬의 주기가 환경조건의 주기와 일치할 때, 즉 동조될 때 생체의 내적 환경은 평형을 유지하게 되고, 그럴 때 건강한 잠을 자게 되며, 따라서 정신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은혜 한 장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27

基督日報
기록일보 www.cdaily.co.kr

Rafa Sulfur Spot Pine Shampoo Bar

소나무 숲에서 즐기는 유황 온천욕

9가지
에센셜 오일

All In
One
올인원
멀티 케어

유황 온천의
40,240배 농도

10가지
자연 유래 추출물

고객상담센터 043-900-0367 / 043-900-0377
쇼핑몰 주소 www.rafarophe.com

검색창에 "라파로페"를 검색해보세요.

QR코드 찍고
구매하러 가기

신앙과 가정 예수민는 사람의 친절

연료하신 어머니의 일로 관공서를 다녀왔습니다. 90세를 넘으신 분이려 누가 봐도 Walker를 의지하며 걷는 노인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관공서에 출입하면 긴 줄은 쉽게 예상되는 일입니다. 비록 노인을 모시고 가는 일이지만 긴 줄에 많은 시간과 불편을 각오하고 관공서를 다녀왔습니다. 아나나 다를까 긴 줄이 이미 건물 밖까지 서 있어서 오늘은 고생 좀 하겠다 싶었습니다. 비록, 예약을 하고 갔어도 그게 어디 쉬운 과정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경비원의 도움으로 그 긴 줄

을 패스하고 앞으로 가서 접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분을 기다려 창구 담당 직원에 갔는데, 형식적인 대화가 오간 다음에 잘못된 몇 부분을 수정하고 마지막에 사진을 찍는 일이 남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곳에도 긴 줄이 이미 서 있어서, 어머니를 창구 가까운데 앉히고 맨 뒤에 줄을 서서 잠시 기다리는데, 이전의 창구 담당 직원이 오더니, 왜 그 뒤에 서 있느냐, 맨 앞으로 불러주세요면서 그 긴 줄을 패스 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야말로 1-2시간은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

각해 보니, 사진 찍는 곳과 창구 직원이 있는 거리는 그 큰 건물의 끝과 끝이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긴 줄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지, 이 끝까지 달려와서 장애 혹은 경로우대를 하는 친절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맨 앞으로 나오고, 행동이 느린 어머니, 손이 떨려 퍼지도 못하고, 사진 찍는 동안 옷매무새와 머리를 정리해 드리는 과정을 보던 사람들의 표정에서 한심하다든지, 짜증스러운 표정이 없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보이지 않는 이해와 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친절한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구나, 감탄스러움이 흘러나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로서의 열매가 밖으로 보이고, 안쪽으로는 성품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친절'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성령의 은사가 아닐지라도 가지고 있는 '친절'이라는 사회적 합의나 마음속 성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싶습니다. 앞의 공

무원은 해주지 않아도 되는 친절을 보여 주며 감동을 주는데, 나의 친절은 의무적 친절은 아닐까, Minimum에 그친 친절을 보이면서 나는 Maximum 친절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해야 될 친절을 보이는 것은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아도 되는 친절을 베풀 때, 아니 내가 해야 할 친절을 넘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친절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친절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다. 그것이 곧 배려이고, 사랑이고, 이해입니다. 이 친절은 자기중심의 인간에게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타적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인 이해 속에서 달라고 하고, 반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친절'이 없다면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친절 또한 Minimum이 아닌 Maximum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교회 제공

성경상식

성인

[saint]
지상과 천상의 소금
덕을 갖춘 사람을 두루 가리키는 말이다. 신약성서에서는 '성도'라는 말과 혼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바울의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성서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가끔 죄를 짓는다고 가르치므로, 성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완벽한 존재는 아니고 다만 고결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면 성인으로 간주 된다. 타락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인은 '남은 의인'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도덕적 소수'라고 할 수도 있겠다. 신약성서의 서신들은 그리스도교도들에게 늘 신의 부름을 명심하고 고결

한 사람으로 처신하라고 상기시킨다. 수백 년 전에는 '성인'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는 죽어 천국에 간 사람을 성인이라고 불렀다. 이후 교회들은 공식적인 성인 명단을 작성했다. 신약성서의 위인들—예수의 사도들, 바울,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등—은 천상의 성인으로 간주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성 바울, 성 베드로, 성 요한 등으로 불렀다. 가톨릭교회와 정교회는 성서의 성인들과 후대에 나온 성인들을 위한 특별한 축일을 정했다. 정교회는 또한 구약성서의 위인들—선지자들, 모세, 욥 등—에게 바치는 성인의 날도 정했다. 가톨릭교회의 경우는 다르다. 가톨릭 성인들은 모두 그리스도교도여야 하는데 구약성서의 인물들은 모두 그리스도교가 생기기 이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날에 성인을 찬양하는 것

은 사람들에게 성인의 선행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술에서 성인을 묘사할 때면 대개 후광을 씌워 그림 속의 일반 사람들과 구분 지었다. 그리스도교 화가들이 후광을 그린 것은 황제의 머리 주변에 후광을 씌우던 로마 미술의 영향 때문이다. 성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스도교도들은 흔히 자기 자식에게 중요한 성인, 특히 신약성서에 나오는 성인의 이름을 붙였다. 이미 기원후 250년에 어느 그리스도교 작가는 동네에 사는 두 소년에게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기록했다. 그래도 예수를 가리켜 '성 예수'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예수는 신의 아들이므로 무죄한 존재였고 주이자, 구주로 간주 되었다. 예수는 그만큼 특별한 존재다. 들녘 출판사 제공

향유음악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종교개혁자 루터는 예배의 가장 큰 타락은 주의 기도를 함부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기도를 바르게 알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까닭은 영혼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 영적 존재로서의 가장 특별한 현상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고 중요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에서 제일 첫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 곧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입니다. 하늘이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뵈 우리의 본향인 천국이라는 장소뿐 아니라, 높고 거룩하고 영원함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계신"이란 장소적 성격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보다 높은 존재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임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또한 아버지란 성적으로 어머니에 상 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개념적으로는 아버지라고 불려도 무 방할 돌보아주시는 보호자요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임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란 논리상 인간 모두의 아버지로서, 온 인류는 한 아버지 아래서 형제자 매가 되는 것입니다. 신마루서신 제공

은혜의 샘물

스스로를 삼갈 줄 알아야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거친 말과 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아이들이 배우고 따르기 쉽고,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더 나쁜 어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자식을 망치지 아니하려는 아버지들은 자식 앞에서 스스로를 삼갑니다. 교인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교역자들. 설교 시간에 스스로를 삼갈 줄 모르는 유명 인사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선생들도 있습니다. 목사의 한마디, 선생의 한마디가 때로는 교인들이나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두렵게 생각한다면 제 아무리 이름난 교역자, 스승이라도 자기 말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 자기에게서 배우려고 온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거둬들 삼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나 교회 안에는



스스로를 삼갈 줄 모르는 오만한 지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면 커질수록 더욱더 자신을 삼갈 줄 알아야 바른 지도자가 됩니다. 박동현 교수(장신대 구약학)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1학년이 된 아들에게

늦은 나이에 너를 만났지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빠 너를 통해 배웠어

그런 너를 바쁜 엄마 아빠 때문에
아침 일찍 보내고 해질 무렵에 하고 시키는 요즘
아빠는 마음이 참 무거운데

“아빠 얼른 가! 학교 진짜 재밌어~”

씩씩하게 웃는 네 모습을 보면
먹고사는 게 뭐라고 어떤 날은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날들이 다 추억이 되겠지?

그 시간이 언제나 아빠는 언제나 널 위해
여기 있을 거다, 등굣길에 잡았던 손 그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네 곁에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
늘 봄 같은 우리 아들**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이 함께 만드는 '돌봄 공백 없는 세상'

KB금융그룹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총 1,250억 원을 지원하여 2,256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하였고, 2027년까지 25개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